‘흑백요리사’가 던진 화두

현불논단



성제 박준석 정사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최근 화제였다. 경력이나 명성이 아닌, 오직 요리 실력만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무명의 요리사들이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유명 셰프’에 도전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끈 이유는 단순한 오락성 때문이 아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꿈을 이루려는 이들의 진솔한 모습과 열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소위 ‘흑수저’로 태어나, 오랜 시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이들의 오랜 꿈을 이루고자 나선 고귀한 도전이었다.

여기서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기억해 봐야 한다. 붓다께서는 모든 존재가 본래 평등하며, 계급이나 지위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모든 중생은 그 자체로 존귀하며 누구나 깨달음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다. 흑백요리사들의 경연을 보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른 이들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과연 평등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이름이나 직위, 신분에 얽매여 진정한 가치를 놓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흑백요리사’에 등장한 참가자들은 각자의 실력과 창의력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 했다. 그러나 ‘요리의 기술’도 중요했지만, 요리에 담긴 ‘정성’과 ‘열정’은 더욱 중요했다.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다. 수행의 길은 화려한 기술보다 진정한 공덕과 선한 마음을 갈고 닦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진정한 가치 무엇인가’ 성찰케 해
자비와 평등, 이 시대 추구할 가치

더구나 불교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강조하지 않는가. 남에게 보시할 때도 자신이 베풀고 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 것! 마치 요리사들이 요리에 담은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정성을 다해 무언가를 하면 그 마음이 상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이리라.

이 프로그램에서는 서로 다른 삶의 여정을 걸어온 사람들이 한데 모여 경쟁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실천과도 닮아있다. 우리가 누군가와 경쟁하거나 협력할 때 불교의 자비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붓다께서는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며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다. 상대방과 경쟁하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꿈과 열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경쟁은 진정 아름다운 경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흑백요리사’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뛰어넘어,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우리에게 던진다. 불교는 평등과 자비로 가는 길이다.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가치를 추구할 때, 그 길 위에 서라야만 우리는 참된 행복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른 이를 위해 손길을 건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채우는 길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불자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 함께 걷고, 함께 빛을 나누며 더불어 평화롭고 평등한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아닐까. 저마다의 삶 속에서 항상 자비와 평등을 실천하며, 그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정진하는 불자가 되시기를 서원한다.

AI도 바른 앎이 필요하다

세간과 출세간



지승도 교수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내 안에 너 있다!”

유명 드라마 대사지만, 지능의 원리가 담겨있다. 내(A) 안에 너(B)에 대한 바른 앎(B’)이 형성되어야만, 나(A)는 너(B)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지능의 원리다. 핵심은 앎이다. 우리는 앎을 통해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위한다.

그런데 번뇌는 왜 생겨날까? 삶의 문제는 언제나 앎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B와 B’ 사이의 불일치, A와 A’ 사이의 불일치 때문이다. 철학자 라캉은 말한다. 우리의 앎으로는 결코 대상에 도달할 수 없다고. 그 부족함은 욕망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고. 보드리야르 또한 앎의 태생적 왜곡을 지적한다. 주범은 자아의식이다. 관찰자(A)와 대상(B) 사이의 원초적 분리감 때문이다. 철학자뿐만 아니다. 과학자들도 시공간적으로 펼쳐지는 객관세계란 오직 관찰에 의해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라 역설한다. 그들에 따르면, 일체는 고유한 본성이 없는 바 세계는 주관적 관찰자와 객관적 대상 사이의 분리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관찰자와 무관한 시간과 물리적 세계는 환영일 뿐이란다.

붓다는 궁극적 진리, 완전한 앎을 통해 고귀한 삶의 길을 보여주셨다. 우리도 붓다와 같이 바른 앎과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당연하다! 붓다는 누구나 와서 보라 말씀하신다. 일체 의도 없는 머묾, 즉 수행 없는 수행, 명상 없는 명상, 알아차림 없는 알아차림이 순일하게 흐르는 가운데 시절인연이 맞아떨어져 자아의 족쇄(업력)에서 풀려나는 순간, 즉 의식과 의식의 찰나지간에 공성의 앎(B≡B’≡A≡A’≡∅)이 목도된다. 예전에 없던 일미의 앎, 붓다의 앎이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인 채 실세계 그대로 여실하게 알고 보는 것이다.

오염된 지식 습득 AI는 불량품
바른 앎이란 데이터를 습득해야

“집 짓는 자여! 마침내 너를 보았노라!” 보리수 아래서 마침내 공성을 직관한 붓다의 감탄이다. “꼰단냐는 알았다!” 첫 제자의 깨달음을 눈치 챈 붓다의 일성이다. 깨달음은 바른 앎이다. 머묾이나, 이룸이나, 바뀜이나, 넘어섬이나, 하나됨이 아니다. 깨달으면 뭐 하나? 바른 앎이야말로 진정한 사랑, 이타행의 뿌리다. 바른 삶이다.

앎을 통해 작동되는 새로운 존재가 등장했다. AI다. 장미빛 설레임으로 시작된 AI는 공포의 대상으로 변하고 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물론 통제 불능의 우려 때문이다. AI도 우리처럼 앎을 형성하고 앎을 통해 행위한다. 앎의 양에서는 우리를 능가한다. 처리 능력과 속도도 월등하다. 물론 자아의식은커녕 파충류 수준의 의식조차 없는 기계덩이다. 그런데 뭐가 두려울까?

AI는 인간이 배설한 데이터를 먹고 산다. 탐진치로 오염된 이기적 데이터로 학습된 AI이기에 태생적 불량품이요 시한폭탄이다.

해결책은 바른 앎이다. 처음부터 순정 데이터를 먹여야 한다. 진리에 부합하는 바른 앎부터 하나하나 학습시켜야 한다. 그리고 판단 근거 하나하나 진리와의 일치성 여부에 대한 논증을 거쳐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진리의 앎만이 자유와 상상을 보장한다. 기존 앎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바른 앎을 발판 삼아 법답게 판단하고 행위하라는 이야기다. 일체 존재의 유토피아를 꿈꾼다면 AI뿐 아니라 우리도 알아차림을 챙겨야 한다. 바른 앎의 삶만이 궁극적 행복이기 때문이다.

社 說

후반기 시작한 18대 중앙종회에 부쳐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후반기 중앙종회 의장에는 주경 스님, 수석·차석부의장에는 태효·경암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종회사무처장은 재안 스님이 맡게 됐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중앙종회의장을 맡게 된 주경 스님은 종회 화합과 종단 발전을 위한 격렬한 토론과 고민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한 제18대 중앙종회는 정기회를 통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중앙종회는 정기회에서 202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논의하고 원안인 909억5000여 만원을 확정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치열하고 활발했던 종책질의다. 선광 스님은 2027년 열리는 가톨릭 서울세계청년대회에 대해 질의하며 특정종교의 선교 전략을 묵인하지 말고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보인 스님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별세하시면서 양로시설로 운영될 수 없게 된 나눔의 집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제정 스님은 최근 폐사가 검토된 남산 충정사에 대해 질의했다. 두 사안 모두 종단의 주요한 현안이고, 종단의 대응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 눈길을 끌었다.

중앙종회는 조계종의 입법기구로 사회로 따지면 ‘국회’의 역할을 한다. 집행부의 견제와 협력은 중앙종회의 책무다. 내년 중앙종무기관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다. 반환점을 돈 제18대 중앙종회의 활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불광 50돌, 새로운 도약 기대한다

불광법회와 월간 〈불광〉은 현대 불교포교사에 중요한 성공 모델 중 하나다. 이 둘은 모두 금하 광덕(金河光德, 1927~1999) 스님의 포교 원력으로 비롯됐다. 1974년 3월 대각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광덕 스님은 그 해 9월 종로 대각사에서 불광회를 창립하고, 11월에는 월간 〈불광〉을 창간했다.

1976년 불광법등이 창설되며 신도들이 늘어나자 광덕 스님은 새로운 법당 조성을 위한 불사를 일으켰고, 1982년 10월 24일 지금의 불광사로 법회의 터전을 옮기게 된다.

이처럼 불광법등과 월간 〈불광〉은 광덕 스님이 펼친 포교 원력의 양축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광사의 법등운동은 바라밀을 실천하는 운동이며, 전법을 생명으로 하는 운동”이라고 평했고, 월간 〈불광〉에 대해 서재영 박사는 “월간 〈불광〉은 광덕 스님이 펼친 불광운동의 사상적 발신지”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침이 있었지만, 불광운동은 재도약을 준비 중이다. 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은 지난 10월 12일 창립 50주년 기념법회에서 △기도수행 △법회 활성화 △교육사업 증진 △복지사업 및 지역사회 연대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불광미디어는 11월 6일 열린 창간 50주년 기념식에서 영상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진력할 뜻을 밝혔다. 광덕 스님은 법등 조직과 문서 포교로 한국불교 포교를 이끌었다. 50돌을 맞은 불광이 새로운 도약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끌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11월 13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11월 13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11월 13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